

# ‘나부터 시간잡자. 틱!톡!’

## 인천백학초 ‘꿈을 찾아 떠나는 백학 Dream High 진로특강’

인천백학초등학교(교장 미영필)는 10월 6일 2교시에 변형미 커리어 코치(인천광역시 교육청)를 강사로 초청해 ‘나부터 시간잡자, 틱!톡!’이라는 주제로 진로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6학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학생들의 시간 관리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해 가는 미래사회에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 방법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강사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와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자신이 시간 관리 하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가올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김보 학생(6학년)은 “오늘 강연을 통해 매일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만 했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고 앞으로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특강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미영필 교장은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는가는 학생들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활과 미래의 준비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아무쪼록 이번 특강을 통해 백학초 학생들이 자신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계획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오늘의 특강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이번 특강을 계기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되는 백학초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인명실 기자 as@**



## 시의 향내 은은하게 퍼지네~

### 인천주안남초, 시 감상 축제 개최

시의 향내 은은한 아름다운 인천주안남초등학교(교장 김재기)에서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제10회 주안남 시 감상 축제 함께해요! 느껴봐요! 시 향기’를 개최했다.

인천주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은 학년 초부터 악기를 통해 아침 활동시간을 이용해 학년별로 연주 기능을 익혔고, 이번 음악회에서 1, 5학년, 2, 4학년, 3, 6학년 두 개 학년의 모여 어울려 강당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우선 1-2학년은 즐거운 마음으로 동요를 부르거나 멜로디언을 연주했고, 3-6학년은 리코더와 오카리나로 협주에 참여하며 다양한 곡을 연주했

다. 참여한 1학년 한 어린이는 엄마 손을 꼭 잡고 하반에서 펼쳐지는 시화 만국기에서 자기 시를 찾아 열매에게 읽어줬다.

시 축제에 처음 방문한 한 학부모는 “공부에 쫓겨 아이들에게 시를 읽고, 장차할 수 있는 활동을 학교에서 지속해서 지도해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이 풍부해지고 마음씨도 고와지는 것 같아 정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축제 3일간 대체로 맑은 날이 진행되는데 운동장에서 색색으로 바람에 날리는 시화 만국기를 비롯해 아이들에게는 교정교정 어울림을 따라 올라

가는 계단에는 학생들이 1년 동안 시 감상 활동을 해온 결과물이 전시되고 있으며, 이는 학부모님들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까지 둘러보고 구경한다고 한다.

작은 음악회와 시 감상 축제는 감성 교육의 하나로써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북돋웠다. 한마음으로 연주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의 악기를 연주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음악과 시 속에 묻어 나오는 학생들의 감성, 예술적인 능력,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은 학생들과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준 행복한 시간이었다.

**인명실 기자 as@**

## 수확의 기쁨 같이 느끼다

### 인천북부교육지원청, 농번기 일손돕기 발벗고 나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직원 30여명은 5일 수확시기에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강회군 양도면을 방문해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5년 10월 북부교육지원청-

양도면 간 농번기 일손 돕기 및 농산물 구매-농촌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5월에도 고구마 모종심기 봉사활동을 펼친 바 있으며, 이번 봉사활동 역시 농번기 일손 돕기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 30여명은 양도면에서 추천한 농가의 일손을 돕기 위해 농내리의 고구마밭을 방문해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한마음으로 발을 정리하고 고

구미를 캐며 굵은 땅방울을 흘리며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보람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강경환 교육장은 “이번 봉사활동이 미약하지만 도농교류 사업추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강화 쌀 및 고구마 등 특산물 구입과 농번기 농촌 일손돕기를 통해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할 계획이다.

## 기대됩니다, 바른 인재가 만든 더 큰 내일

공인 내무가 되어 자라라!  
뜻을 바로 세운 사람이 세상을 리더한다.  
총무인턴(보통고급직)과 인사관리사(2급)에 임용되는  
상지대인재를 바탕으로 학업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바른 인재를 양성하는 상지대학교

바른 인재를 기우는 새로운 접근방법.  
상지대학교의 바른 인재가 만들어갈  
더 큰 내일이 기대됩니다.

**상지대학교**

상지대학교 학생홍보대사 위은민(시립중앙대학교 3학년)

##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 넓히다

### 인천연수초, 연수구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교실



인천연수초등학교(교장 정영섭)는 10월 7일 3학년-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조성하기 위한 인천연수구립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 교실을 실시했다.

인천연수구립예술단 관악단은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건반악기로 구성돼 있고 장르에서도 클래식, 세미클래식, 영화음악, 재즈 음악, 현대음악, 대중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성을 지닌 악단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공연 특색에 맞추어 잘 잡히기 어려운 악기에 대한 설명과 악기마다 개성을 잘 살린 연주곡을 선정하고 이해를 돕는 해설까지 진행해 다양성이 있는 공연을 펼쳤다.

관악단은 지휘자 백종성의 지휘에 따라 학생들에게 익숙한 영화음악, 대중음악을 연주했으며 색소폰, 플루트, 트럼펫 등 개성 강한 악기들의 솔로 연주는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참여한 6학년 학생은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를 학교 강당에서 보고 듣게 돼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왔고 트럼펫, 플루트, 색소폰 등 오케스트라에서 쓰이는 다양한 악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영섭 교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공연, 축제, 악기 소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음악적 소양을 넓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인명실 기자 as@**

## 학생의 성장과 발달 돕자

### 인천서부교육지원청, 과정중심평가 적용 사례 나눔 연수 실시

인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양동현)은 10월 4일 대강당에서 관내 연구부장 및 평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과정중심평가 적용 사례 나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 연수는 현장 교사들로 하여금 과정중심평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감하게 하고, 과정중심평가를 적용하는 과정에 겪는 일선학교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학교 현장에서 과정중심평가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정중심평가를 선도적으로 운영 하는 사례를 소개하여 단위학교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 하였고, 본인 토의를 통해 각 학교별 과정중심평가

운영 사례를 공유하여 일선학교의 평가 수행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상호간에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워크숍 형태로 운영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염모 교사는 “과정중심평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는데, 다양한 운영 사례들을 들으며 어느 정도는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동현 교육장은 “평가의 변화는 수업의 변화를 이끈다”고 하며, “과정중심평가를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가 일체화되는 수업중심의 학교로 회를 형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승삼 인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백령도 현장의 소리 청취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삼)은 10월 5일부터 6일까지 백령도에 위치한 북포초등학교(교장 김필민)와 백령초등학교(교장 정철원), 백령중학교(교장 박성민)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교육장 학교 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승삼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간담회를 통해 도서지역 학교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이어진 학교 시설 시찰에서는 삼파교 관사 안전시설을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도서벽지 학교의

안전시설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승삼 교육장은 “이번 백령 일원 학교 방문 간담회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현장중심 체험형 실천행동’을 위해 필요한 소중한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아울러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앞으로 도서지역 학생 교육과 교육행정 지원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